



## 올림픽 축구 대표팀 최종 엔트리 18명 확정

**“이젠 주전경쟁”**

2008 베이징올림픽 남자축구 메달 사냥에서 나설 박성화호의 최종엔트리가 21일 확정됐다. 치열한 경쟁을 뚫은 18명의 태극전사들은 당당히 올림픽 본선 무대를 밟는다.

올림픽 참가의 마지막 관문은 넘어서지만 18명 앞에는 넘어서야 할 산이 또 하나 남아 있다. 바로 베스트11에 들기 위한 본격적인 주전 경쟁이다. 박성화 올림픽대표팀 감독은 4-4-2를 기본 포메이션으로 전술을 구상 중이다. 대강의 그림은 이미 그려졌다.

최전방 투톱은 박주영(서울)-이근호(대구)가 선점하고 있다. 세 번째 공격 옵션으로 마지막

까지 마음을 놓지 못했던 신영록(수원)은 선발 라인업에 들기 위해 또 한 차례 피 말리는 싸움을 벌여야 한다. 기동력이나 상대 수비를 해집는 힘의 축구에서 경쟁력을 갖춘 신영록이 박주영이나 이근호와 각각 투톱으로 호흡을 맞출 수도 있다.

전형에 변화를 줘 최전방에 원톱을 세운다면 신영록 카드는 충분히 유용하다.

좌·우 미드필더는 김승용(광주)과 이청용(서울)이 유력하다. 열아홉 살의 대표팀 막내 조영철(요코하마)은 교체 요원으로 이들을 뒷받침할 가능성이 크다.

가장 경쟁이 치열한 곳은 중앙 미드필더다. 일단 김정우(성남)는 24세 이상 와일드 카드로 뽑혔으나 부상이나 컨디션 난조 등 특별한 경

우가 아니라면 박 감독이 중용하겠다고 약속한 셈이다.

나머지 한 자리를 놓고 백지훈(수원)과 오장은(울산), 기성용(서울)이 다투는 모양새다.

기성용은 백지훈과 오장은이 부상으로 대표팀 훈련에 정상적으로 참가하지 못했을 때 김정우와 중원에서 호흡을 맞췄다. 기성용이 지난해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에 참가하고 본격적으로 올림픽대표팀에 합류한 뒤 치른 베이징올림픽 아시아 지역 최종예선에서는 기성용-오장은, 오장은-백지훈, 백지훈-기성용 조합이 두루 활용됐다.

‘골 넣는 수비수’ 김근환·MF 조영철 발탁

무엇보다 조직력이 중요한 수비라인은 큰 변화를 주기 힘들다. 포백 수비라인에서 와일드카드인 김동진(제니트)이 김창수(부산)와 좌·우에 배치되고, 중앙에는 A대표팀에서도 뛴 김진규(서울)-강민수(전북)가 짙을 이를 것으로 보인다.

‘골 넣는 수비수’인 장신 김근환은 공격적 재능보다는 김진규, 강민수에 뒤쳐지지 않는 수비력을 보여주는 것이 급선무다. 신광훈(전북)은 베이징올림픽 대표팀 출범 때부터 주전으로 활약해온 김창수와 경쟁해야 한다. 김동진이 중앙 수비수로 출전하면 좌·우 풀백 모두 소화할 수 있는 김창수가 왼쪽에 서고, 신광훈에게 오른쪽 풀백 자리가 돌아갈 수도 있다.

골키퍼는 A대표팀에서도 주전으로 활약하고 있는 정성룡(성남)의 입지가 위축 탄다.

대표팀은 27일 코트디부아르, 31일 호주와 친선경기를 치른 뒤 올림픽 본선 조별리그 1, 2차전을 치른 중국 친황다오로 다음달 3일 출국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신영록



김근환



## ■ 박성화호 특징은?

2008 베이징올림픽 남자축구 최종엔트리 21명이 21일 발표됐다. 최종명단에 김근환(경희대)이나 조영철(요코하마) 등 몇몇 새 얼굴들이 포함됐지만 그 동안의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박 감독은 최종엔트리를 통해 선수들의 멀티플레이 능력을 강조하고 중원 운동 구성을 드러냈다.

올림픽 본선 최종엔트리는 18명에 불과하다. 당연히 여러 포지션을 맡길 수 있는 선수에게 눈길을 줄 수밖에 없다. 박 감독도 그 동안 “한 자리만 볼 수 있는 선수는 전형적인 스트라이커나 중앙 수비수 등 3-4명이면 된다. 그렇다면 최종엔트리 중 골키퍼 2명을 제외하고 12명 안팎의 선수가 남는다. 한 자리만 소화할

**‘멀티플레이어·중원’ 강조**

수 있는 선수를 뽑으면 팀 운동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1인 다역”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해 왔다. 24세 이상 와일드카드에서도 이는 잘 드러났다. 김동진(제니트)은 왼쪽 풀백은 물론 중앙수비까지 가능하며, 김정우(성남)는 공격형 수비형 미드필더로 뛸 수 있다.

스트라이커와 쳐진 스트라이커, 윙포워드로 두루 활용할 수 있는 박주영(서울)도 마찬가지고, 박 감독이 각각 공격수와 미드필더로 구분한 이근호(대구)와 김승용(광주)도 상황에 따라 서로 위치를 바꿔 뛸 수 있

다. 풀백 김창수(부산)는 좌·우 어디에 세워놓아도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

깜짝 발탁한 장신 김근환은 상황에 따라 공격수로도 배치할 수 있고, 조영철 역시 측면 미드필더와 스트라이커로 써 먹을 수 있다.

박 감독은 최종명단에서 포지션별로는 미드필더 자원을 가장 많이 냈다. 18명을 골키퍼 2명, 수비수 6명, 미드필더 7명, 공격수 3명으로 각각 배분했다. 박 감독은 최종엔트리 발표 기자회견에서 “우리와 같은 조에

속한 팀들의  
객관적인 전력  
이 위에 있다.  
상대의 미드필

드 플레이를 어떻게 제압하고 효과적인 공격을 하느냐에 우리의 성적이 달려있다”며 ‘중원 싸움’을 강조 했다.

특히 미드필더 7명 중 측면 자원은 김승용과 이청용, 조영철 세 명이고 나머지는 중앙 미드필더다. 박 감독은 부상에서 갓 회복한 백지훈과 오장은을 나란히 최종명단에 포함해 김정우, 기성용(서울)과 함께 네 명의 중앙 미드필더 자원을 확보했다. 조합에 따라 공격적, 수비적 운영 모두 가능하다. 미드필드부터 확실히 장악해 결코 소극적인 경기 운영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 박 감독의 각오다.



D-17

## 남북 공동 응원단 사실상 물건너 가

## 비공식 공동응원 추진

베이징 올림픽 개막(8월 8일)이 22일로 17일 남은 가운데 남북 당국이 지난해 합의한 남북 공동 응원단 구성은 사실상 물건너갔으나, 남한의 민간단체들을 중심으로 남측 응원단이 베이징 현지에서 북측 응원단과 어울려 ‘비공식’ 공동응원을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를 위해 민족화합협력범국민협회(민화협)와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한국에총, 민예총, 서울시체육회 등 5개 단체가 공동으로 ‘베이징 올림픽 남북 공동응원단’을 모집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400~500명 규모로 응원단을 구성한다는 계획으로, 1차 모집(25일까지) 중이나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 2차(8월 1일까지) 모집을 할 예정이다. 당초 남북 당국은 지난해 10·4남북정상선언 당시 경의선을 이용해 ‘남북 공동응원단’이 올림픽 응원에 나서기로 합의했으나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가 급악해온 데다 최근 금강산 피살 사건까지 겹쳐면서 실무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들은 남북 ‘공동응원단’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일단 남측이 독자적인 응원단을 만든 뒤 베이징에서 북측 응원단과 함께 자연스럽게 ‘공동응원’을 펼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

흥사단 관계자는 21일 “당국이 합의한 공동응원단이 아니고 대표성도 없지만 외적인 형태가 아니라 합의를 이행한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22일(화)

▲ 메이저리그 &lt;LA다저스 : 콜로라도&gt;

(09 : 55 : Xports)

▲ 프로야구 &lt;두산 : 한화&gt;(18 : 00 : KBSN SPORTS), &lt;롯데 : SK&gt;(18 : 10 : SBS 스포츠), &lt;우리 : LG&gt;(21 : 00 : MBC ESPN), &lt;삼성 : 기아&gt;(18 : 20 : Xports)

▲ 일본 프로야구 &lt;한신 : 요미우리&gt;(18 : 00 : MBC ESPN)

23일(수)

▲ 맨체스터 Utd 남아공 투어 &lt;울랜도파이리즈 : 맨체스터 Utd&gt;(03 : 00 : MBC ESPN)

## HOME CON 홍컨 不動產 리서치

상무지구 한국은행 위 062) 385-9994

(부동산) 프로젝트 伸介 · 開發 · 리서치 선언!



- 받은 것보다 큰 이익을 줍니다.
- 얼굴을 걷고, 책임 있게 합니다.
- 천천히, 청밀하게 합니다.
- 차분하고 정돈된 사람들입니다.
- 고객에게 늘 \_\_\_\_\_을 줍니다.

(2억 이상)  
분석된 물건 수  
(정·비정) 건  
(2억 이상)  
의뢰 고객 수  
(정·비정) 분

## 대승공인중개사

062) 954-7700, 010-9468-7959

수완지구  
아파트 분양권 거래전문

## 토지매매

- 수완자구 333-1(명의변경가능) 60미터 대로변 상업용지, 3면도로 주차장인원 720m² 3.3평당 600만원
- 수완자구 아파트 밀집지역 정문 입구 상업용지 500m² 평당 190만원
- 광산구 수완동 35m 대로변 자연부지 1,782m² 4,231m² 평당 70만(분할가)
- 광산구 선암동 대지 374m² 평당 30만원
- 광산구 신촌동 광송간대로변 지하철역 앞 상업지역 대지 286m² 평당 9,000만원
- 광산구 지정동 전(묘지) 643m² 평당 28,000원

## 노블메디컬센터 임대분양

- 수완자구 중심상권 - 지하 1층, 지상 8층 연면적 5,000㎡
- 1층 : 의료·전시장·인테리어·부동산·이동통신업
- 2~5층 : 병의원(내과·소아과·안과·피부과·비뇨기과·등) 임대면적(평수 대략)
- 6~8층 : 치과병원(임플란트전문) 개원 확정

○ 수완지구 용지매매 및 개발상담 ○  
광주·전남지역 주유소·충전소 거래 전문

## 생계형, 음식, 호프, 고치구이 전문 컨설팅

## 한국부동산 공인중개사

062-374-2860 · 010-9115-4467

## 기획 · 메뉴개발 · 매과상담 · 경영진단 · 인테리어

## ▶ 서구 마월동 보증금 5천만원 월1백4십만

## ▶ 서구 화정동 보증금 1천2백만 월5십만

## ▶ 서구 생촌동 보증금 2천만 월1백2십만

## ▶ 서구 풍암동 보증금 5천만원 월7십만

## ▶ 서구 차평동 297㎡ 보증금 3천만 월3백4십만

## ▶ 서구 미등동 주차장 990㎡ 보증금 2천만 월1백4십만

## ▶ 광산구 흑석동 주차장 990㎡ 보증금 2천만 월1백5십만

## ▶ 서구 화정동 보증금 2천만원 월120만원

## ▶ 북구 양산동 보증금 1억 월600만원

## ▶ 서구 화정동 보증금 2천 월80만원

## ▶ 광산구 생암동 보증금 6천 월300만원

## ▶ 서구 금호동 보증금 1억 월300만원

## ▶ 서구 화정동 보증금 1,200 월60만원

## ※ 시설비 인테리어 비용 별도

영업이 부진하면 원인이 있습니다.

기획에서 메뉴개발 경영 노하우 전수!

식당 전문 컨설팅과 상담하십시오.

\*생계형 신규창업 상급(창업비용 2천만원에서 10억까지 다양화) 매매·임대 수시 접수합니다.\*

## 금보부동산컨설팅

☎ (02) 61-8949 웹 011-602-2223

(신수동 543-51(두암동입구 신거리))

## ▶ 쌍방매매

동구 산동 3동 대지 200평 1층 100평 매매 6억 5,000만원(부지 주유소·생화장실·화재보기장)

동구 산동 3동 대지 200평 1층 100평 매매 4,000만원

동구 산동 3동 대지 200평 1층 100평 매매 3,500만원(부지 주유소·화재보기장)

동구 산동 3동 대지 200평 1층 100평 매매 3,000만원(부지 주유소·화재보기장)

동구 산동 3동 대지 200평 1층 100평 매매 2,500만원(부지 주유소·화재보기장)

동구 산동 3동 대지 200평 1층 100평 매매 2,000만원(부지 주유소·화재보기장)

동구 산동 3동 대지 200평 1층 100평 매매 1,500만원(부지 주유소·화재보기장)

## ▶ 전월부지매매

동구 산동 23동 대지 400평 1층 100평 매매 1억 2,000만원

서구 동암동 대지 200평 1층 100평 매매 1억